

News

수익성 관건에...은행, '지분형 모기지' 난색

이데일리 <https://vo.la/YMSWgzf>

정책기관·은행·거주자가 집 한 채를 공동 소유하고 가격 등락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기대보다 우려 섞인 시선
상품 구조가 복잡해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대출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급감도 예상

계속되는 은행 금융사고...내부통제 방법 없나

뉴시스 <https://vo.la/xPVVAK>

올해 들어서도 은행권에서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시중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차 고도화해 감사 인력상 물리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

1은행·1거래소 조건부 해제...은행간 자금이동은 규제

서울경제 <https://vo.la/fiqsyq>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규제를 풀더라도 두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막아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은행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늘리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효과도 거둘 것

1억 예금자보호 확대에도 저축은행권 '속앓이'...중소형사 타격 불가피

시사저널e <https://vo.la/cVVrITR>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예상
그러나 PF 부실로 인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중소기업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KB證, HUG 첫 1兆 보증 ABS 단독주관

파이낸셜뉴스 <https://vo.la/hsNggp>

KB증권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1조원 규모 공모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단독주관, 발행
단일규모로 1조원 규모 ABS는 10년 만으로, 단일 트랜치(순위)이자 HUG 보증으로는 처음

'작년 1위 경쟁→올해 중위권' 밀린 한투증권, IPO 실적 '흔들'

더팩트 <https://vo.la/UrpXUzf>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연말까지 KB증권과 주관 실적 1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인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IPO 부문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
한국투자증권은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대표 주관사, DN솔루션즈의 공동 주관사를 맡았기 때문에 두 대어의 상장 철회에 따른 IPO 실적 부침은 더해진 상황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줄었지만 '비급여 쏠림' 여전

매일신문 <https://vo.la/uOGIMdj>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천200억원 적자로 전년(1조9천700억원) 대비 3천500억원 감소했으나 비급여 쏠림은 여전
특히, 병·의원 비중이 66.1%에 달하는 등 특정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중도 해약하면 넣은 돈 다 날리는데”...‘무해지’ 보험상품 유지율 뚝

매일경제 <https://vo.la/zTIITR>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약 땀 되돌려 받는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상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계약 유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보험업계는 유지율 하락 원인은 보험료 부담보다는 가입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보험을 갈아타는 것으로 분석